

Day36. iOS Programming_5

전미정

1. WWDC 2015 에서 발표 되었던 기능과 내용을 간추려 보고 실제로 자신이 사용하는 앱에 적용되어 발전된 사례, iOS 9 기본기능 중 유용하게 쓸 수 있었던 것

iOS 9 에 추가된 주요 기능

- **Proactive Assistant** : 사용자 행동을 예측하여 서비스 지원(이어폰 꽃을 시 음악어플 작동/ 이메일 전화번호 알림)
- **Spotlight API**: 어플 내부 데이터 검색
- **Siri Upgrade**: 능동적 검색 및 문구 이해력 증가
- **Apple Pay**: 미국과 영국에서 애플페이 지원
- **Notes**: 손 필기 지원 및 브라우저, 지도, 영상 연결 가능
- **Wallet, News app**: 뉴스, 지갑 어플 등장
- **Live Photo**: 라이브 포토 촬영 지원

실제로 사용하는 앱에 적용된 사례

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포토 지원(생동생동)

기본기능 중 유용하게 쓸 수 있었던 것

원래 노트 어플을 많이 쓰는 편인데 필기를 할수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매우 유용하게 쓸 수있었다.

이메일을 통해 연락하던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이메일의 이름이 화면에 떠서 누군지 손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.

라이브 포토를 통해 많은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.

2. WWDC 2016의 키노트를 요약해보고, 마음에 드는 기능과 느낀점

WWDC 2016은 크게 4가지 OS를 소개한다. tvOS, watchOS, macOS, iOS. 각 OS는 지난 버전보다 훨씬 빨라지고, 새로운 기능을 탑재하였으며 기존에 애플에서만

사용하던 기능을 API로 제공하면서 다양한 어플에서 사용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.
방송을 보며 실시간으로 느꼈던 인상을 기준으로 기억에 남은 기능을 정리하면
다음과 같다.

- **tvOS:** iphone의 리모컨화
- **watchOS:** 미니마우스 시계 등장(얼마나 기다렸는지!)
- **macOS:** 클라우드를 이용한 메모리 최적화, 시리 사용, 기계간 복사기능
- **iOS:** 사진(얼굴인식, 앨범생성, live포토 수정), 뮤직(가벼워진 인터페이스, 가사지원!), 아이메시지 그리고 **교육용 스위프트**

느낀점 서류봉투에서 얇은 맥에어를 꺼내던 스티브잡스의 키노트를 봤을 때 이보다 더 인성적인 발표는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iOS 공부를 시작하고 처음 본 키노트인 WWDC 2016은 그 어떤 발표보다 인상적으로 다가왔다. 특히,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설계하고 지향해야하는지 깨닫게 해주었다.

사용자에게 정말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,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애정이 담기지 않고서는 탄생할 수 없는 기능들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. 특히 아이메시지를 발표할 때 감탄 하지않을 수 없었는데, 나는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회가 점점 개인화, 고립화 되어간다고 생각했다. 수많은 게임, 영상, 웹툰 등 혼자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늘어갈 수록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들게되고, 이는 IT가 발달하면 발달할 수록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다. 그런데 아이메시지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감성을 자극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교류를 즐거운 방식으로 증대시키려는 애플의 모습은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기술의 발전 방향과 상반되는 것이었다.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쓸데없는

기능일 수 있지만 그들이 무엇을 위해, 어떤 결과를 위해 아이메시지를 발전시켰는지를 생각해보면서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의도와 방향 자체에서 깊은 감명을 받을 수 있었다. 나도 이런 어플을 개발하고 싶다!!
(교육용 스위프트를 보며 또 많은 것을 느꼈지만 여기까지만 적어야겠다;)

3. iOS 9과 iOS 10 기능을 활용해서 구현해보고 싶은 기능 3가지 이상 생각해보기

- 새로운 지도 앱을 이용한 여행 경로 어플
- 시리를 탑재한 심심이 어플(심심한 사람들을 위해)
- 노트어플의 기능을 이용한 일기장 어플

4 iOS 10의 새 기능으로 망할 것 같은 서드파티 앱과 흥할 것 같은 앱 생각해보기

망할지도 모르는 앱

- 맥과 아이폰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 자동 잠금/ 잠금해제 기능을 제공하는 유료어플들(ex. Near Lock)이 하락세에 들어서게 될것으로 추측
- 각종 apple Music 가사 어플. 한국, 일본, 미국 앱스토어의 웬만한 가사 어플을 다운받아써보았지만, 무엇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는데 애플이 자체적으로 가사를 지원하면서 부실했던 서드 파티앱들이 망할 것으로 예측

흥할지도 모르는 앱

- 너무 빨라 구경할 새도 없었던 lock 화면을 좀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배경화면 어플이 흥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
- 아이메세지에서 스티커와 간단한 영상을 지원하면서 사용자들의 사진을 쉽고 재밌게 꾸밀 수 있는 어플들이 흥할 것으로 예상